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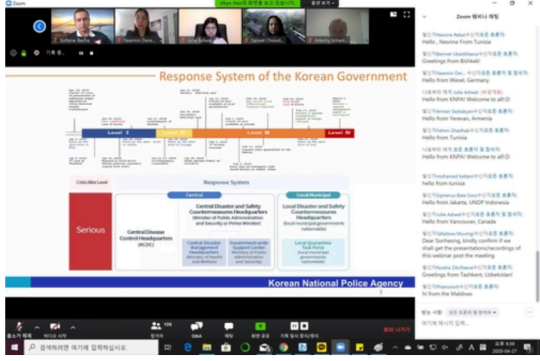

**Korean Media Round-up
Webinar (27 April 2020) on
“How Can the National Police Service Respond to COVID-19:
Exampl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News Outlet / Reporter	Article Summary and Link
1	Financial News / Byung-hoon Lee	<p>On 27 April,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ereafter KNPA) hosted a webinar with UNDP Seoul Policy Centre (hereafter USPC) to introduce its policing experiences during COVID-19. 120 participants from Germany, Canada, Singapore, Lebanon, and more joined for the webinar.</p> <p>https://www.fnnews.com/news/202004280943294632</p> <p>경찰청·UNDP,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 개최</p> <p><small>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4.28 11:00 수정 : 2020.04.28 11:00</small></p>  <p>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이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p> <p>[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 27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p> <p>이번 세미나는 UNDP의 요청으로 열렸다. 스테판 클링어빌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p> <p>이에 경찰은 경찰청이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UNDP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합동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p> <p>이번 세미나는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37개 국가에서 총 120명이 참여했다. 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활동을 발표한 후,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p> <p>발표를 진행한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총경 김용중)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경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주무 기관”이라며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이어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업무와 함께 경찰관 감염 예방대책 및 시설 방역 절차를 상황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발표했다.</p> <p>경찰 관계자는 “참석자들도 한국의 치안 환경의 변화 양상과 경찰의 대응전략을 묻거나, 자가격리이탈자의 소재확인이나 동선 공개 시 사생활 보호 문제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수한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2</p>	<p>Seoul Economic Daily Co. / Donghoon Han</p>	<p>Yong-Jong Kim, director of Crisis Management Center at KNPA, explained in detail KNPA’s tools in tracking confirmed patients, cracking down on opportunistic crimes related to COVID-19, inspecting public facilities, and facilita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p> <p>https://www.sedaily.com/NewsView/1Z1NG01S0P</p> <p>"한국 경찰 코로나19 대응 체계 배우자"...경찰청, 웹 세미나 개최</p> <p>독일 등 37개국 120명 참여</p> <p>한동훈 기자 2020-04-28 11:18:51 사회일반</p>  <p>경찰청 관계자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열고 있다./사진=경찰청</p> <p>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27일 한국 경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웹(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p> <p>이번 세미나는 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최근 여러 나라로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하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마련됐다.</p> <p>웹 세미나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과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37개국 대표 120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활동이 소개됐고, 이를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p> <p>발표를 맡은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한국 경찰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p> <p>특히 김 센터장은 한국 경찰의 대응 경험을 자세히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을 단계별로 설명했다.</p> <p>경찰청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한국의 방역 경험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찰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p> <p>/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p>
<p>3</p>	<p>Tech World / Jeongjin Kim</p>	<p>The webinar aimed to further discuss and elucidate KNPA’s response measures shared in its publication brief, ‘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 Participants from 37 countries, including Rule of Law Policy Specialist at UNDP headquarters, joined for the webinar.</p> <p>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50</p>

		<p>경찰청, UNDP 네트워크로 한국 경찰의 감염병 대응 체계 공유</p> <p>김정진 기자 승인 2020.04.30 14:41 댓글 0</p> <p>[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경찰청은 2020. 4. 27. (월) 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p> <p>UNDP는 유엔의 개발활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스테판 클링어빌 서울 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p>  <p>이에 대한민국 경찰청이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UNDP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p> <p>이번 웹 세미나는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하여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전 대륙에 걸친 37개 국가에서 총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활동을 발표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p> <p>발표를 진행한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총경 김용중)은 '한국 경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주무 기관으로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다.</p> <p>특히 경찰의 대응 경험을 자세히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수렴하여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업무와 더불어 경찰관 감염 예방대책 및 시설 방역 절차를 상황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p> <p>참석자들 또한 감염병 재난 이후의 범죄 발생 현황 등 한국의 치안 환경의 변화 양상과 경찰의 대응전략을 묻거나, 자가격리이탈자의 소재확인이나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p> <p>한국 경찰의 경험사례 공유에 이어, 소핀 바카 UNDP 본부 법집행특별정책관도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법집행기관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적인 정책 과제들을 언급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UN 차원의 지침과 한국 경찰의 방역적 치안활동이 많은 부분 부합하여 인상적이라고 밝혔다.</p> <p>참석자들은 '한국 경찰의 방역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 경찰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길 희망하였다.</p> <p>앞으로도 경찰청은 우수한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세계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계획이다.</p>
4	Asia Today / Boyoung Kim	<p>As many countries requested knowledge sharing on fighting COVID-19, USPC and KNPA hosted a webinar to demonstrate KNPA's lessons learned from its emergency response measures during COVID-19. The presentation was followed by questions concerning privacy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tracking self-quarantined people and increased number of illegal activities.</p> <p>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428010017240</p>

		<p>경찰청·UNDP,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 개최</p> <p>김보영 기자 기사승인 2020. 04. 28. 18:04</p> <hr/> <p> 한국 경찰 감염병 대응 체계와 모범적 경험사례 공유</p>  <p>지난 27일 경찰청사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혁신적인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p> <p>경찰청은 지난 27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혁신적인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이번 웹 세미나는 세계 많은 국가가 USPC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해움에 따라 경찰청이 배포한 관련 영문자료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p> <p>스테판 클링어빌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p> <p>세미나에는 뉴욕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세네갈 등 전 대륙에 걸친 세계 37개 국가에서 120명이 참여했다.</p> <p>우리 경찰은 대응 경험을 자세히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수렴해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 경찰관 감염 예방대책 및 시설 방역 절차를 상황별 자세히 설명했다.</p> <p>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감염병 이후 범죄 발생 현황과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확인 시 사생활 보호 문제 해결방법을 질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p> <p>소핀 바카 UNDP 법집행특별정책관은 “UN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한국 경찰의 방역 치안 활동이 많은 부분 부합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p> <p>김보영 기자 kboyu@asiatoday.co.kr</p>
<p>5</p>	<p>Munhwa News / Jihye Woo</p>	<p>On 27 April, KNPA and UNDP Seoul Policy Centre jointly hosted a webinar presenting KNPA’s policing measures during COVID-19. Stephan Klingebiel, director of UNDP Seoul Policy Centre, noted, “This webinar was organized at the request of many countries for knowledge sharing. We thought experience sharing on COVID-19 by Korea would be significant at this time.”</p> <p>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15</p> <p>HOME > 뉴스 > 일반</p> <p>‘한국 경찰 코로나19 대응’ 화상 토론회에 37개국 120명 참여</p>

		 <p>경찰청-UNDP,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소개하는 화상 토론회</p> <p>[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경찰청이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지난 27일 밤 한국 경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28일 밝혔다.</p> <p>이번 토론회는 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최근 여러 나라로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하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마련됐다.</p> <p>화상 토론회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과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37개국 대표 120명이 참여했다.</p> <p>발표를 맡은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한국 경찰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p> <p>특히 김 센터장은 한국 경찰의 대응 경험을 자세히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 자기격려자 소재 확인 ▲ 불법 행위 수사 ▲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을 단계별로 설명했다.</p> <p>참여자들은 한국의 방역 경험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찰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를 희망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p>
<p>6</p>	<p>The Korea Economic Daily (Hankyung) / KyoungJoo Kang</p>	<p>KNPA shared its COVID-19 response measures during a joint webinar held with UNDP Seoul Policy Centre on 27 April. Yong-Jong Kim, director of Crisis Management Center at KNPA, noted, "KNPA has established the Police Disaster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maintained emergency response operation 24 hours."</p> <p>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42871937</p> <p>K-경찰 뜬다..UNDP "한국 치안 대응 사례 공유 필요성 느껴"</p> <p>코로나 확산 속 한국 경찰 대응 사례 37개국 공유 경찰청 "방역적 경찰 활동에 인적·물적 역량 집중"</p>  <p>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가 국제사회에 공유됐다. [사진=경찰청 제공]</p>

		<p>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가 국제사회에 공유됐다. 한국 경찰의 시스템을 지구 대응 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인 곳도 있다고 전해진다.</p> <p>경찰청은 27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p> <p>세미나는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37개국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p> <p>이번 세미나는 UNDP의 요청으로 열렸다. 스테판 클링어빌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p> <p>이에 경찰은 경찰청이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UNDP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합동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p> <p>이번 세미나는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37개 국가에서 총 120명이 참여했다. 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활동을 발표한 후,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p> <p>한국 경찰 발표자로는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총경)이 나섰다. 그는 "한국 경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주무 기관"이라며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경찰청이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지난 27일 밤 한국 경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웹(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최근 여러 나라로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하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2020.4.28 [사진=경찰청 제공]</p> <p>국외 세미나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 이후 범죄 발생 현황, 한국 치안 환경 변화 양상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 사생활보호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p> <p>경찰 관계자는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국 경찰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며 "경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찰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경찰대학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이라며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캡) 바람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p>
7	Newsis / Dongjoon Shim	<p>During a joint online webinar with UNDP Seoul Policy Centre, KNPA shared its policing measures during COVID-19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experience. Questions on privacy concerns and monitoring of quarantined people were actively raised by the audience.</p> <p>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8_0001008307&cID=10201&pID=10200</p> <p>"코로나 치안, 한국경찰이 한수위"...K팝도 세계가 주목</p> 

		<p>화상회의 방식 국제 세미나...37개국 참여 경찰 코로나19 대응 주제...세계 도입 논의</p>  <p>[서울=뉴시스] 지난 27일 경찰청이 UNDP(유엔개발계획) 참여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2020.04.28 (사진 = 경찰청 제공)</p> <p>[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가 국제사회에 공유됐다. 모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를 자국 대응 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인 곳도 있다고 전해진다.</p> <p>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UNDP(유엔개발계획) 참여 웹 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뤄졌다.</p> <p>회의는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37개국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p> <p>이번 세미나는 경찰청과 UNDO 서울정책센터(USPC)가 함께 추진했으며, 주제는 국제적 대유행 상황인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국 사례 공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선정이 이뤄졌다고 한다.</p> <p>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찰의 위기 대응 체계, 감염병 상황에서의 주요 활동이 발표됐다. 발표 사례를 해당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논의도 있었다고 전해진다.</p> <p>한국 경찰 발표자로는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총경)이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p> <p>그는 세미나에서 재난대책본부 설치,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당국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언급했다.</p> <p>국외 세미나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 이후 범죄 발생 현황, 한국 치안 환경 변화 양상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 사생활보호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p> <p>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0일째인 이날까지 한국의 대응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졌다.</p> <p>이 같은 배경에서 경찰은 국내 방역활동을 정리한 영문자료를 해외 194개국과 국제기구 3곳에 배포하는 등 세계 전파에 나선 상황이다.</p> <p>경찰 관계자는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국 경찰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며 "경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8	Money Today / Nami Kim	On 27 April, UNDP Seoul Policy Centre and KNPA jointly hosted a knowledge sharing webinar on the KNPA's successful policing measures

during COVID-19. Sofiene Bacha, Rule of Law Policy Specialist at UNDP headquarters, highlighted that KNPA's responses align with UN/DP's policing guidelines in many aspects.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09303836757>

"韓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배우자"...글로벌 화상 회의 개최



경찰청은 지난 27일 UNDP(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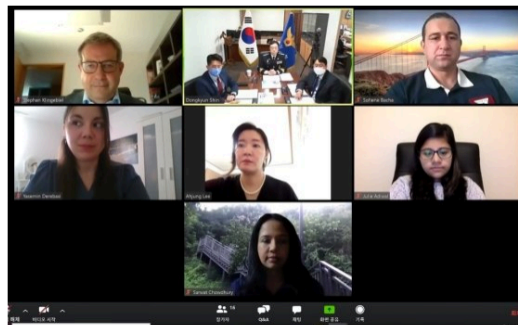
UNDP는 유엔의 개발활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다. 이번에 진행된 웹 세미나의 정식 명칭은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한국의 구체적 사례'다.

스태판 클링어빌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웹 세미나는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싱가폴 △레바논 △세네갈 등 전 대륙에 걸친 37개 국가에서 총 120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최근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

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활동을 발표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韓 경찰 "재난대책본부 24시간 대응"...참석국 한국과 협력관계 확대 희망



지난 27일 열린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 한국의 구체적 사례' 웹세미나 진행장면 /사진제공=경찰청


발표를 진행한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경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주무 기관"이라며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 경찰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업무와 경찰관 감염 예방대책, 시설 방역 절차를 상황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p>참석자는 감염병 재난 이후의 범죄 발생 현황 등 한국의 치안 환경의 변화 양상과 경찰의 대응 전략을 묻거나, 자기격리이탈자의 소재확인이나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p> <p>한국 경찰의 경험사례 공유 후에는 소핀 바카 UNDP 본부 법집행특별정책관도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법집행기관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적인 정책과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UN 차원의 지침과 한국 경찰의 방역적 치안활동이 많은 부분 부합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p> <p>경찰청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한국 경찰의 방역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찰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길 희망했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경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9</p>	<p>The Asia Business Daily / Kuan Joo Lee</p>	<p>With growing interest in Korea's emergency response model, UNDP Seoul Policy Centre and KNPA jointly hosted a knowledge-sharing webinar. KNPA discussed its experience in tracking carriers, monitoring self-quarantined people, protecting its personnel and police facilities, and more.</p> <p>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0532735578</p> <p>일반 ></p> <p>경찰청, 국제기구 회의서 '코로나19' 한국 경찰 대응 사례 발표</p>  <p>사진=경찰청 제공</p> <p>[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 경찰이 국제기구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에 노하우를 공유했다.</p> <p>경찰청은 27일(한국시간)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캐나다·싱가폴 등 37개 국가 120여명이 참석했다.</p> <p>UNDP는 국제연합(UN)의 개발활동을 조정하는 대표적 국제기구 중 하나다. 스테판 클링거비 USPC 소장은 "여러 국가로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p> <p>세미나는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와 각국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를 진행한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한국 경찰은 재난대책본부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특히 한국 경찰은 최근 인터폴과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지원 ▲자기격리 위반 방지 및 대책 ▲코로나19 의심환자 추적 ▲외국인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경찰관 보호 및 경찰 시설 격리 방안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 업무와 방역활동의 프로세스를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p> <p>이러한 질의응답에서 각각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범죄 현황 등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전략, 자기격리 이탈자 소재확인 방법 등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소핀 바카 UNDP 법집행특별정책관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UN 차원의 지침과 한국 경찰의 방역 치안 활동이 많은 부분에서 부합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10</p>	<p>Edaily / KiJoo Park</p>	<p>Yong-Jong Kim, director of Crisis Management Center at KNPA, presented in detail KNPA’s policing measures written in its policy brief “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 He further highlighted that KNPA has maintained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24 hours and invested all available resources in preventing spread of COVID-19.</p> <p>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83046625740712&mediaCodeNo=257&OutLnkChk=Y</p> <p>"韓경찰 코로나19 대응책 세계에" ...경찰청·UNDP, 웹 세미나 개최</p> <p>경찰청, UNDP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체계 소개 37개국 120명 참석해 질의응답 감염병 이후 치안, 사생활 보호 문제 등에 관심 집중</p> <p>등록 2020-04-28 오전 11:00:00 수정 2020-04-28 오전 11:00:00 박기주 기자</p> <p>[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 경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이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이를 통해 한국 경찰과 다른 국가의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p>  <p>경찰청이 지난 27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UNDP 관계자 및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에게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p> <p>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UNDP(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p> <p>UNDP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엔의 개발 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번 웹 세미나는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에 대해 공유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는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37개국 120명이 참여했다.</p> <p>이 세미나는 앞서 경찰청이 세계 각국에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활동을 발표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p> <p>특히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과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 한국 경찰의 대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p> <p>참석자들은 감염병 재난 이후 범죄 발생 현황 등 한국의 치안 환경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을 했고,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이나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p>
-----------	----------------------------	--

		<p>발표를 진행한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한국 경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주무 기관으로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소핀 비카 UNDP 본부 법집행특별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지침과 한국 경찰의 방역적 치안활동이 많은 부분 부합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p>
11	YTN	<p>120 participants from 37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joint webinar by UNDP Seoul Policy Centre and KNPA. This webinar was organized in response to growing request for knowledge sharing on the Korean police’s measures to fight COVID-19.</p> <p>https://www.ytn.co.kr/ln/0103_202004281106085005</p> <p>뉴스홈 > 사회</p> <p>한국 경찰 '코로나19 대응' 전 세계 공유...UNDP 웹 세미나 개최</p> <p>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방역 활동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웹 세미나를 열었습니다.</p> <p>경찰청은 어제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USPC)와 함께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구체적 사례’라는 제목으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p> <p>이번 웹 세미나는 세계 많은 국가가 USPC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최근 경찰청이 배포한 관련 영문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p> <p>세미나에는 뉴욕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세네갈 등 전 세계 37개국, 관계자 120명이 참여했습니다.</p> <p>우리 경찰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 업무인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불법행위 수사,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함께 경찰관 감염 예방대책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p> <p>이에 참석들은 감염병 이후 범죄 발생 현황과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확인 시 사생활 보호 문제 해결방법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p> <p>소핀 비카 UNDP 법집행특별정책관은 UN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한국 경찰의 방역 치안활동이 많은 부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12	CCTV News / Beomgyu Kim	<p>In the webinar jointly hosted by KNPA and UNDP Seoul Policy Centre on 27 April, KNPA shared its policing experiences during COVID-19 and discussed ways f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maintain law and order in this time of crisis.</p> <p>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2</p> <p>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 개최...37개국 참여</p> <p>ⓒ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4 14:30 댓글 0</p>

		<p>경찰청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고 한국 경찰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p> <p>청은 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한국의 구체적 사례(Innovative Response to COVID-19:Concrete Examples from Korea) 제목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p> <p>UNDP는 유엔의 개발활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다. 스테판 클링어빌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해왔다.</p> <p>이에 대한민국 경찰청이 배포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UNDP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p> <p>이번 웹 세미나는 뉴욕에 있는 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레바논, 세네갈 등 전 대륙에 걸친 37개 국가에서 총 120명이 참여했다.</p> <p>한국 경찰의 위기대응 체계와 감염병 상황에서 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활동을 발표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p> <p>발표를 진행한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용중 총경은 "한국 경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주무 기관"이라며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적 경찰 활동에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p> <p>특히 경찰의 대응 경험을 자세히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수렴해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당국의 역할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업무를 설명했다.</p> <p>더불어 경찰관 감염 예방대책 및 시설 방역 절차를 상황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강의했다.</p> <p>한국 경찰의 경험사례 공유에 이어 소핀 바카 UNDP 본부 법집행특별정책관도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법집행기관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적인 정책과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UN차원의 지원과 한국 경찰의 방역적 치안활동이 많은 부분에서 부합해 인상적이라고 했다.</p> <p>참석자들은 '한국 경찰의 방역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한국 경찰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길 희망했다.</p> <p>앞으로도 경찰청은 우수한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계획이다.</p> <p>Tag #자가격리자 #코로나19 #경찰청 #UNDP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방역</p>
<p>13</p>	<p>Topstarnews / Chul Hui Kim</p>	<p>During its webinar with UNDP on 27 April, KNPA presented its COVID-19 response structure and experiences in tracking quarantined people, suppor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specting public facilities. KNPA's English policy brief was also distributed to participants from 37 different countries.</p> <p>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1535</p> <p>"코로나치안, 한국경찰이 한수위"...K갑도 세계가 주목</p> <p>김 김철희 기자 승인 2020.04.28 11:00 댓글 0</p> <p>📄 제보하기 🗨️ 반론요청</p>  <p>뉴스시스 제공</p>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가 국제사회에 공유됐다. 모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를 자국 대응 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인 곳도 있다고 전해진다.</p> <p>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UNDP(유엔개발계획) 참여 웹 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뤄졌다.</p> <p>회의는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37개국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p> <p>이번 세미나는 경찰청과 UNDO 서울정책센터(USPC)가 함께 추진했으며, 주제는 국제적 대유행 상황인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국 사례 공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선정이 이뤄졌다고 한다.</p> <p>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찰의 위기 대응 체계, 감염병 상황에서의 주요 활동이 발표됐다. 발표 사례를 해당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논의도 있었다고 전해진다.</p> <p>한국 경찰 발표자로는 김용중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총경)이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p> <p>그는 세미나에서 재난대책본부 설치,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당국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 시설 합동점검 등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언급했다.</p> <p>국외 세미나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 이후 범죄 발생 현황, 한국 치안 환경 변화 양상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 사생활보호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p> <p>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0일째인 이날까지 한국의 대응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졌다.</p> <p>이 같은 배경에서 경찰은 국내 방역활동을 정리한 영문자료를 해외 194개국과 국제기구 3곳에 배포하는 등 체계 전파에 나선 상황이다.</p> <p>경찰 관계자는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국 경찰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며 "경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p>
--	--	---